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연금공단 국감 현장에 가보니

‘국민연금 제도 개선 토론회’ 방불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는 연금 혜택 재산정부터 재정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부 단일안 도출, 부과식으로 변경 등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놓은 토론회를 방불케 했다.

정부는 애초 예정했던 10월말보다 한 달가량 늦은 11월말까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는 정부안 제출 이후 국회 논의 과정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포문을 야당이 열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민연금 수익비' 산출 과정을 지적했다. 납부한 보험료보다 노후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총 보험료 현재가치' 대비 '총 연금액 현재가치' 비율로 계산한 수익비가 실제 혜택보다 과소 평가돼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평균 소득자(월 227만원) 수익비를 1.8 배라고 얘기하는데 공단은 가입자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만 반영했다"면서 "국민연금 급여에는 사망할 경우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과 장애를 가질 경우 장애연금까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447만5143명이 국민연금 급여 18조1553억원(일시금 제외)을 받았는데 수급자의 15.9%인 69만3141명이 급여의 10.3%인 1조 8747억원을 유족연금으로 수령했다. 장애연금도 7만15486명(1.7%)이 3490억원(1.9%) 받았다.

여기에 공단은 연금 수령 가능 기간(현행 국민연금 수급 연령 62세, 2033년부터 65세)으로 볼 수 있는 65세 이후 기대여명을 20년으로 가정했는데, 2016년 통계청은 장래 인구추계를 통해 25.3년으로 내다 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23일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연금홀(중회의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성주 이사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소하 "수익비 계산" · 오제세 "부과방식 변경"에

김성주 이사장 "수익비 산출 기준 재조정"에 동의
부과방식 전환 관련 연금 강화하는데 전문가들이 동의

윤 의원은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을 합치고 기대여명을 25.3년으로 조정해보니 평균소득자의 수익비는 2.6배가 됐다. 40년 가입했을 때 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2.6배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수익비 산출 기준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윤 의원 질의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좋은 의견"이라며 "지금 세대 수급자만이 아닌 미래세대 수급자는 기대여명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 수익비에 산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여담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

원은 현행 '적립방식'인 국민연금 제도를 '부과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독일과 영국, 일본 등 연금 역사가 오래된 국가들은 대부분 그해 연금지출을 같은 해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부과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 한국 국민연금도 이런 흐름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오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4배가 넘는 노인빈곤율을 예로 들면서 "국민연금은 노인에게는 무용지물이자 그림의 떡이고 청년에게는 불신의 대상

이자 지속 불가능한 제도"라면서 "매년 50조원 이상을 국민연금공단이 뺏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0년만 운용 가능하고 그 이후엔 불가능한 제도를 선진국처럼 부과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다른 나라는 부과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따로 주지 않고 50만원에서 100만원을 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주장에 김성주 이사장은 "(부과방식)으로 전환은 중요한 문제여서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쟁돼 왔던 문제"라면서 "많은 국가에서 기초연금 중심이나 국민연금 중심이라는 선택되고 둘의 조합에 의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기초연금을 확대하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강화해 나가는 데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지법, 타지역 법원보다 비위 공직자 처벌엔 관대

이춘석 의원 "작년 도내 공무원 10명 중 6명 집행유예"

전주지법이 다른 지역 법원들에 비해 비위 공직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사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각 지방법원 공무원 범죄 판결 유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직무관련 범죄 및 뇌물죄로 기소된 전북도내 공무원은 총 33명으로 전주지법은 이 가운데 61%인 20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는 전국 평균 집행유예 선고율인 40%보다 무려 20% 이상 높은 수치로, 서울서부지법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이다.

반면 전주지법에서 공무원 범죄에 대해 인신구속형 자유형을 선고한 비율은 15%로 공무원 범죄 전국평균(27%)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으며, 자유형 선고율 14%를 기록한 춘천지법에 이어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내 비위 공직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법원으로 부터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의미다.

이춘석 의원은 "전주지법이 공무원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은 십 수 년간 꾸준히 지적되어 온 내용"이라며, "이 같은 경향이 지체 도내 공직자간 해이로 이어져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원이 공무원 범죄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부정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도의회 교육위, 내년 예산심사 대비 현장활동

행정사무감사 등에도 대비

전주 원도심 학교 등 방문 점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가 23일, 전주초등학교와 남원소재 학생수련원 및 남원교육문화회관을 찾았다.

이는 도의회 교육위가 「2018년 행정사무감사 및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대비해 지난 18일부터 익산과 군산(미세먼지 및 엘리트 체육), 19일 고창과 부안(시설공사 및 학생 안전)에 이어 3일차 현지의정활동으로 전주 원도심 학교 및 남원 교육문화회관과 학생수련원을 찾은 것이다.

이날 오전 교육위는 전주 원도심학교 중 하나인 전주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관계자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학교시설을 둘러보면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박희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원도심학교이자 혁신학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학부모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원도심학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후 일정으로 교육위원 의원들은 남원읍과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남원교육문화회관과 산하 수영장 시설 등을 둘러봤다.

진형식(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주민들이 방문 이용하기 때문에 이들의 안전까지 책임질 수 있는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 남원 수영장 운영과 관련해 "수영장 위탁업체의 계약이 내년에 종료됨에 따라 재공고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지(민주당, 전주8) 의원은 "교육문화회관으로써 역할을 다해달라"면서 "교육관계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주민맞춤형 행정을 펼쳐 달라"고 말했다.

이어 남원 운봉에 있는 전북학생교육원을 방문해 시설물과 교육과정을 살펴본 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영규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이 언제나 마음 놓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에 대한 주기적 안전진단과 점검을 해야 한다"면서 "특히, 교육문화회관의 평생교육과정과 학생교육원의 교육과정들이 실생활에 접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교육행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민주당, '유치원 비리 근절 3법' 당론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오후 5시께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늘 비리유치원 근

절대책 관련 3법을 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당론으로 제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승래·박용진·서영교·박찬대·김해영·박경미 의원 등 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국민들의 걱정이 큰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자인 박용진 의원은 "사립유치원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3가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며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

의한 이후 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 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충분히 함께 논의해 야당들도 모두 뜻을 공감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 발의 후 심의위원회에서 빠르게 논의할 수 있고 집중 논의가 가능하다"며 "여야 이견이 없어 집중적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1

태권도원

Taekwondown THE GREAT CHANGE

- 태권도시범공연**
고년도 신기술과 품새, 그리고 격파가 어우러진 공연 1일 2회 무료 상설 공연
- 국립태권도박물관**
무예도보통지를 비롯한 태권도 유물과 전문자료 전시 세계 최초 태권도 전문 박물관
- T1경기장**
세계 최초 최고의 태권도 전용 경기장 태권도 경기 단채행사, 훈련 등 다목적 시설(4,571석)
- 전망대**
백운산 해발 560m에서 전북·충북 경복의 파노라마 뷰 조망 모노레일, 백운리페 운영

- 세계 태권도성지로서의 태권도 수련, 체험, 교육, 문화교류 복합공간!
- 일반단체 등 대규모 행사, 워크숍을 위한 최적의 공간!
- 대자연에서 누리는 휴(休)와 최적의 힐링 공간!

태권도원 연수시설
(265 객실, 최대 1,400명 수용)

55547)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T: 063-320-0114 http://tkdwon.kr 재정후원 문화체육관광부 KSPPO 국민체육진흥공단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후원을 받고 있습니다.